

# BTS 10주년

책 '비욘드 더 스토리' 발간



## “아미 보면 안아주고 싶어요”

〈팬 클럽〉

연습생 시절~스타 부상까지 500쪽 분량 허심탄회 인터뷰 빌보드 메인 싱글 1위 소감 등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 풍성



“지금 저희에게 성적이 인기, 거기서 따라오는 돈 같은 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민)

“저희는 ‘아미(방탄소년단 팬)가 웃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 나가고 있어요.” (제이홉)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솔직하게 풀어낸 책 '비욘드 더 스토리 : 텐 이어 레코드 오브 BTS' (BEYOND THE STORY : 10-YEAR RECORD OF BTS, 빅히트뮤직)를 9일 내놨다.

멤버들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옛 소속사 사옥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던 시절부터 고민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데뷔 초기, 인기를 쌓아가던 시절, 월드 스타로 부상한 이후 등 지난 10년의 궤적을 가감 없이 들려줬다.

방탄소년단 팀명은 '10대에 대한 억압과 편견을 막아 주는 소년들'이란 의미로, 데뷔 이후 신인상도 받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

제이홉은 데뷔 준비 과정에 대해 “‘오아악!’ 하면서 연습해서 모니터링하고,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 보고, 또 ‘오아아아!’ 연습하면 밤 10시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로서는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 출신이었다는 점, 진한 힙합 색깔과 K팝 아이돌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는 점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멤버들은 어느 래퍼로부터 디스(Diss-꺾아내림)를 당한 일, 가사가 논란을 빚은 일, 재계 약 시점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일 등 힘들었던 시기에 관해서도 털어놓았다.

책은 방탄소년단이 멤버들의 생각과 경험을 음악으로 직접 표현하는 팀이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 고군분투했다는 점을 시종 강조한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10년을 집대성한 엔솔러지(선집) 음반 명이 ‘프루프’(Proof)인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데뷔 초창기엔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의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선후배 가수도 왕왕 있었다고 했다.

TV·라디오에서 유튜브와 SNS로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던 시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기민한 홍보 전략도 눈길을 끈다.

뷔는 멤버들을 가리켜 “제가 볼 땐 우리 멤버들 다 ‘도라이’다. 미친놈들만 가득 있어서 독기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도 무대를 사랑하는 감정은 더 커지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 너무 좋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은 K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차 음반으로 기록된 ‘화양연화’·‘러브 유어 셸프’(LOVE YOURSELF) 시리즈를 거치며 신인에서 1위 가수로, 대상 가수에서 월드 스타로 발돋움했다.

슈가는 인기가 급상승하던 2017년 무렵의 기분을 “제가 갑자기 무렵지 속 주인공이 됐고,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때렸는데, 어찌다 보니 그냥 한 방에 이겨버렸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저희에게 붙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나, 저희가 끌어내는 많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반응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게 한참 올라갔다가, 원치 않게 고꾸라질 수도 있으니까”라고 부담과 두려움도 토로했다.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아미에 대한 애정도 빼놓지 않았다.

RM은 “저는 제 팬을 만나면 사실 너무 안아주고 싶다”면서도 “그렇게 하는 동시에 환상을 팔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경계 사이에 유리로 된 다리를 놓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이 2020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던 순간의 소감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진은 의외로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1위를 해도 체감이 잘 안됐다”며 “체감이 지금까지 받은 상이나 순위 중에 제일 안 다가왔다”고 말했다.

반면 제이홉은 “아침에 일어나서 (순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진짜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응했다.

방탄소년단 팬이라면 책을 읽으며 멤버들과 함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방시혁이 멤버들에게 ‘되짜’를 맞아 히트곡 ‘DNA’의 멜로디를 다시 썼다는 이야기나, 영어 달변의 대명사 RM조차도 ‘생존왕’으로 영어를 배웠다는 깨알 같은 뒷얘기도 찾아볼 수 있다.

위버스 매거진을 쓰는 대중음악평론가 강명석이 멤버들을 인터뷰해 책을 썼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방탄소년단의 위상에 걸맞게 총 23개 언어로 출간된다.

국내 출간되는 7월 9일은 팬덤 아미가 탄생한 ‘아미 데이’이기도 하다.

책을 보면 무엇보다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을 한 번 부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공연에 들어가요. 무대 시작 전까지는 언어를 빼고 있다가, 객석 함성 듣고 딱 인이어 끼고,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국)

/연합뉴스

# 광주 여름밤 적시는 ‘현의 노래’

기타리스트 변보경 14일 금호아트홀, 장하은 18일 예술의전당

7월 광주, 전도유망한 두 기타리스트의 아름다운 ‘현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세계적 기타리스트’로 주목받는 변보경과 슈퍼밴드2에서 이름을 알린 장하은이 광주에 오는 것. 두 여성 기타리스트에게는 공통점이 많다. 해외에서 주로 공연해왔다는 사실부터 촉망받는 예술가로 평가받는 점, 클래식 기타를 45도쯤 기울이는 서정적 주법까지 흡사하다. 반면 각자의 음악적 스타일은 확고하다.

먼저 변보경 초청 리사이틀이 14일(오후 7시 30분)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한국기타협회의 기획시리즈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광주(14일)와 서울(22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세계적 기타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는 변보경은 10대 전부터 기타를 잡았다. 그동안 한국음악협회, 한국기타협회, 미국 기타재단 국제 콘서트 아티스트콩쿨에서 한국인 최초 1위를 했으며 16세에 천재성을 인정받아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했다. 이후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음악예술을 전공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풀러턴에서 기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레코드 가이드는 “내가 들어본 해석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명료한 표현”이라 언급했으며 사운드보드 매거진은 “연주하는 곡의 첫 음표부터 음악적 탁월성, 기술적 완벽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변보경의 독주에 기타리스트 윤원준, 김수정과의 협연까지 이루어진다. ‘한오백년’, ‘또 아리랑’을 윤원준과 연주한 뒤 아구스틴 바리오스, 미로슬라브 타디치 등의 곡을 김수정과 듀오로 선보일 계획이다.



변보경



장하은

아울러 ‘예술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장하은 콘서트도 이목을 끈다. 이번 공연은 ‘Once Again’이라는 제목으로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슈퍼밴드2에서 이름을 알린 장하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있다. 국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열린 스페인 난민 돕기 자선음악회에 참여해 호평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은 ‘리베르 탱고’부터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양한 장르로 꾸며진다. 드라마 OST 등으로 친숙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Fly Me To The Moon’이나 7080 메들리까지 라인업에 있어 전 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두 공연은 각각 인터파크,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 ‘범죄도시’ 1~3편 관객 3000만 돌파

한국영화 시리즈 최초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1~3편의 전체 누적 관객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섰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9일 밝혔다.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현재 상영 중인 ‘범죄도시 3(사진)’의 누적 관객 수가 전날 1042만6000여명을 넘어선데 이어 1~3편을 모두 합한 누적 관객 수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첫 편인 ‘범죄도시’(2017)의 누적 관객 수는 688만여명이고, ‘범죄도시 2’(2022)는 1269만3000여명이다.

한국영화 시리즈의 누적 관객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범죄도시 3’는 지난 1일 누적 관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해 한국 영화로는 21번째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천만 영화’ 두 편을 배출한 ‘범죄도



시’ 시리즈는 ‘쌍천만’ 시리즈가 됐다. ‘범죄도시 3’는 금천경찰서 강력반에서 서울 광역수사대로 소속을 옮긴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신종 마약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21년의 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침단 쌍암공원 앞 위치